남궁민 결혼식 사회 봤던 '절친' 정문성, '천원짜리 변호사' 특별출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6/0000289282?sid=106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천원짜리 변호사' 최종화에 배우 정문성이 특별 출연한다.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극본 최수진, 최창환/연출 김재현, 신중훈)는 수임료는 단돈 천원 실력은 단연 최고,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이 빽 없는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통쾌한 변호 활극. 전 채널 통합, 한주간 방영된 미니시리즈 1위로 금토 왕좌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천원짜리 변호사'가 오는 11일 최종화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정문성의 특별출연 소식이 전해져 기대감이 고조된다.9일 '천원짜리 변호사' 측이 공개한 스틸 속 정문성은 주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한강 어귀에 홀로 외로이 있는 모습이다. 화이트셔츠와 정장바지, 뾰족한 정장 구두 등 전혀 자연 친화적이지 못한 옷차림이 장소와 언밸런스를 이루며 눈길을 끈다. 더욱이 잔뜩 헝크러진 머리카락과 거뭇한 턱수염, 꼬질꼬질해진 옷차림은 그의 행적에 의문을 싹 틔우는 요소다. 과연 정문성이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것인 것, 그가 한강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높인다.'일희일비'하는 정문성의 표정이 시선을 강탈한다. 먼발치를 바라보며 금방이라도 절규를 내지를 듯한 표정을 짓던 것도 잠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환희에 찬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일순간 좌절에 휩싸여 힘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는 것. 이처럼 드라마틱한 감정의 변화를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정문성의 연기력이 스틸만으로도 웃음을 자아내는 한편, 정문성의 지원사격으로 위트와 재미가 더해질 '천원짜리 변호사' 최종화에 기대감이 수직 상승한다.정문성은 배우 남궁민과 절친한 사이다. 그는 지난달 남궁민-진아름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맡기도 했다.'천원짜리 변호사' 최종화는 오는 11일 밤 10시에 방송된다.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오백원짜리 변호사' 된 '천변'…남궁민, 3년 연속 대상 좌절되나 [MD칼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7/0003665950?sid=106

[이승길의 하지만]연이은 반쪽 편성으로 '천원짜리 변호사'는 '오백원짜리 변호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됐다.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극본 최수진 최창환 연출 김재현 신중훈)의 출발은 더 없이 순탄했다.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와 MBC 드라마 '검은 태양'으로 2020년과 2021년 연이어 SBS, MBC 연기대상을 수상한 배우 남궁민은 또 한 번 몸에 꼭 맞는 캐릭터로 '믿고 보는 배우'의 진가를 입증했다.'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우는 괴짜 변호사'라는 어찌 보면 익숙한 설정이지만 남궁민은 원맨쇼에 가까운 연기 활약으로 작품을 이변 없이 동시간대 시청률 정상으로 올려놨다. 마의 15% 시청률을 넘어선 작품. 이러니 2022년 연말 남궁민의 '3년 연속 연기대상'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증폭된 것은 당연했다.문제는 중후반 이후의 덜컹거림이었다. 시작은 지나친 결방.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중계,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 등의 변수가 있었다지만 '천원짜리 변호사'는 10월 21일 이후 '금토드라마'지만 금요일에는 볼 수 없는 '토요드라마'가 되고 말았다. 과도한 결방이 이어지다보니 '천원짜리 변호사'가 반쪽이 됐다는 '오백원짜리 변호사'라는 농담까지 나왔고, 시청률도 자연스럽게 하락했다.여기에 히트작에 따라붙는다는 것이 석연치 않은 '조기종영' 결정까지 내려지며 기세는 또 한 풀 꺾였다. '천원짜리 변호사' 측은 14부작으로 알려진 드라마를 12회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스피드한 전개와 완성도 높은 전개를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스피드한 전개와 완성도 높은 전개'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 후반부 이후 전개는 방향성을 잃었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과도한 PPL 파티 뿐이었다.   
당초 '천원짜리 변호사'가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엔딩은 시청자의 찬사를 받는 결말, 그리고 그 결과 주어지는 남궁민의 3년 연속 대상 트로피였다. 그러나 길을 잃은 '천원짜리 변호사'는 자꾸만 '뱀의 꼬리'로 향하고 있다.[사진 = SBS 제공](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홀연히 떠난 남궁민, 복수 위해 컴백…김지은과 다시 뭉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19737?sid=106

[서울=뉴시스] '천원짜리 변호사' 11회. 2022.11.06. (사진 = SBS 제공)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남궁민이 제대로 된 복수를 위해 다시 돌아왔다. 5일 방송된 SBS TV 금토극 '천원짜리 변호사' 11회에서 천지훈(남궁민 분)이 옛 연인 이주영(이청아 분)의 목숨을 앗아간 차민철(권혁범 분)을 살해할 뻔 한 뒤,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1년의 은둔생활을 거치고 한층 단단해진 모습으로 백마리(김지은 분), 사무장(박진우 분)의 곁에 돌아오는 모습이 그려졌다.천지훈은 백현무(이덕화 분)와 차민철이 함께 있는 것을 본 뒤, 백마리가 과거 자신이 아버지를 수사하며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겪게 될까 봐 걱정했다. 또 차민철이 자신의 연인을 죽이고도 뻔뻔스럽게 잘 살고 있는 모습에 분노에 휩싸인 채 파티장에 비치된 칼을 들고 차민철의 뒤를 쫓았다. 하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고 칼을 버린 천지훈은 뜻밖에 '흑막'과 마주하게 됐다. 그는 바로 JQ그룹 회장 최기석(주석태 분)이었다. 천지훈은 연단에 서서 인사말을 하던 최기석의 목소리를 듣고, 과거 아버지의 자살을 종용했던 전화 속 목소리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천지훈은 홀연히 천원짜리 변호사 사무실을 떠났다. 지금의 자신은 이주영이 바라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고 로펌 '백'으로 돌아간 백마리는 돈 많은 법꾸라지들을 대변하며 자괴감을 느끼는 한편 때때로 천지훈의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금붕어 밥을 주며 마음의 위안을 찾았다. 사무장 역시 사무실 청소를 하며 천지훈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마리가 돌아오지 않는 천변을 잊으려 애쓰고 있는 그 시각, 천지훈은 아주 잘 살고 있었다. 마치 파리지엥이 된 것처럼 프랑스 마을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시골 마을에 찾아가 무료 변호 상담을 하는 등 이주영이 바라던 모습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었다. 다만 아직 사건을 수임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천지훈은 상담 봉사 중에 알게 된 사건이 JQ그룹 계열사인 JQ제약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컴백에 시동을 걸었다.JQ제약 사건 검토를 위해 검찰청에 간 천지훈은 백마리에게 딱 걸리고 말았다. 백마리는 도주하는 천변을 붙잡아 그간의 서운함을 담아 꽃다발 따귀를 날리는 것으로 분풀이를 했다. 뒤늦게 나타난 사무장 역시 천변에게 분노의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렸고 이후 1년 만에 모인 세 사람은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다시 팀을 결성했다. 한편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전국기준 이날 11회 시청률은 13.6%를 기록하며 주춤한 추세를 보였다. 자체 최고 시청률인 8회 15%를 경신한 이후 시청률은 9회 14.6%, 10회 13.7%를 수치를 보이며, 드라마의 결말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오는 11일 최종회인 12화를 끝으로 종영한다.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뒷심 부족 남궁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20550?sid=106

'천원짜리 변호사' 마무리가 엉성하다. 배우 남궁민이 2년 그리고 드라마 두 편 연속 아쉬운 뒷심을 보여주고 있다. SBS 금토극 '천원짜리 변호사'로 흥행 가도를 달리던 남궁민이 종영을 앞두고 시청률과 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위기다. 중반부까지 많은 관심을 얻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터라, 예상치 못한 '추락'이 더욱 놀랍다. 지난 9월 23일 첫 방송된 '천원짜리 변호사'는 8.1%(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이하 동일)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4주 만인 10월 15일 방송된 8회에서 15%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종영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으나, 어느새 시청률은 하락세를 타 11월 5일 방송된 11회 13.6%를 나타냈다. 시청률 숫자보다 더 눈에 띄는 건 현저히 낮아진 화제성이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여러 화제성 조사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10회를 넘어서며 언제 그랬냐는 듯 시청자의 관심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언급량이 현저히 줄었고, 드라마 인기의 척도 중 하나인 짧게 편집된 영상 클립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OTT 통합검색 및 콘텐트 추천 플랫폼 키노라이츠에 따르면, 10월 5주 차 통합 콘텐트 랭킹에서 '천원짜리 변호사'는 '몸값' '공조2: 인터내셔날' '헤어질 결심' '슈룹' 등에 상위권을 내어주며 5위에 올랐다. 잦은 결방 탓이다. 10월 21일과 28일, 11월 4일까지 총 세 차례 결방됐다. 이야기 전개가 최고조에 달할 때인데, 잦은 결방으로 흐름이 뚝 끊겨버렸다. 몰입도도 뚝 떨어졌고, 관심 또한 뚝 끊겼다. 콘텐트가 넘쳐나는 요즘, 주 1회 방송 드라마가 돼 버린 '천원짜리 변호사'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이해하기 힘든 조기 종영도 악영향을 미쳤다. 당초 14부작으로 알려졌던 '천원짜리 변호사'는 12부작으로 마무리된다. 풀어나갈 이야기가 많은데도, 두 시간 분량을 줄였다. 사건 전개가 어색했고, 시청자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혹평이 나왔다. 의문스러운 조기 종영이 작품성을 해쳐 용두사미 드라마가 되지 않겠냔 우려가 이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천원짜리 변호사' 측은 "속도감 있고 완성도 높은 전개를 위해 12부작 종영을 결정했다"지만, 조기 종영에 관해 업계에서는 여러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뒷맛이 쓴 마무리를 하고 있는 남궁민은 지난해에도 용두사미를 경험한 바 있다. 전작인 드라마 '검은 태양'을 통해서다. '검은태양'은 15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 만든 남궁민의 기대작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3회에서 9.8%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시청률로 진입하는 듯했다. 그러나 중반부를 넘어서며 시청률은 7%대로 하락했고, 드라마는 큰 반향 없이 막을 내렸다. 지난해 연말 남궁민은 이 작품으로 MBC 연기대상을 받았으나, 모두가 납득할 만한 트로피는 아니었다. '검은태양'에 이어 '천원짜리 변호사'까지 용두사미 혹평을 받게 된 남궁민. 이에 대해 한 방송 관계자는 "'천원짜리 변호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뒤를 잇는 인기작이 될 거란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내부 사정과 상황이 계속되며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검은태양'과 '천원짜리 변호사'까지 원톱 주연을 맡은 남궁민에게도 작품 혹평으로 인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남궁민, 기대되는 변신…"11회는, 파리지엥 천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3/0000087527?sid=106

배우 남궁민이 파리지엥으로 변신했다. SBS-TV ‘천원짜리 변호사’(극본 최수진·최창환, 연출 김재현·신중훈) 측은 4일 현장 스틸을 공개했다. 남궁민(천지훈 역)의 색다른 모습을 담았다. 천지훈은 파리 시민들 사이에 자연스레 어우러져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을 즐겼다. 노천카페에 홀로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여유를 만끽했다. 천지훈 변호사의 트레이드마크인 선글라스와 파마머리도 벗어던졌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뿔테 안경으로 댄디한 매력을 드러냈다. 그가 파리지엥으로 변신한 이유는 무엇일까.지난 10회 방송에선 천지훈이 옛 연인 이주영(이청아 분)을 살해한 차민철(권혁범 분)의 정체를 밝혀내는 모습을 그렸다. 천지훈은 파티장 한 켠에서 차민철을 찾아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복수심에 휩싸였다. 행사장에 비치된 칼을 들고 차민철에게 다가갔다. 이후 내용은 11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천원짜리 변호사’는 금일 방송을 쉬어간다. 오는 5일 오후 10시에 11회로 찾아온다.    
<사진제공=SBS>

상대는 송중기인데…남궁민 '천변' 조기 퇴장, 후속은 '조선구마사' 감독作 [TEN스타필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2/0000579484?sid=106

《태유나의 듣보드뽀》'천원짜리 변호사' 후속 '소방서 옆 경찰서' 제작총괄 故이힘찬 PD 사망 사건→역사 왜곡 '조선구마사' 감독 메가폰[텐아시아=태유나 기자]   
송중기, '소방서 옆 경찰서' /사진=텐아시아DB, SBS《태유나의 듣보드뽀》태유나 텐아시아 기자가 현장에서 듣고 본 사실을 바탕으로 드라마의 면면을 제대로 뽀개드립니다.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SBS 금토극이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남궁민 주연의 '천원짜리 변호사'가 시청률 15%를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는 듯했지만, 갑작스러운 조기종영과 막무가내 결방·편성으로 뭇매를 맞은 것에 이어 후속작 역시 방송 전부터 여러 잡음으로 곤욕을 앓고 있기 때문. 여기에 경쟁작은 JTBC의 회심의 카드인 송중기 주연의 '재벌집 막내아들'. 1%대까지 추락했던 SBS 금토극의 미래가 다시금 어두워진 이유다.현재 '천원짜리 변호사'는 종영까지 1회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상황은 좋지 않다. 당초 14부작과 달리 12부작으로 종영하면서 이유 없는 결방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하락했다. 여기에 작품의 완성도와 빠른 전개를 위해 축소 종영한다는 설명과 달리 11회에서도 남궁민의 갑작스러운 잠적 등 헐거운 전개로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천원짜리 변호사', '소방서 옆 경찰서' 포스터./사진제공=SBS남궁민의 열연에도 최악의 용두사미로 남을 위기에 놓인 '천원짜리 변호사'. 여기에 후속작으로 출격하는 '소방서 옆 경찰서' 역시 문제가 많다. '소방서 옆 경찰서'는 당초 올해 초 방영 예정이었지만, 제작 총괄로 일했던 故 이힘찬 PD가 지난 1월 사망하며 촬영이 4개월가량 중단된 바 있다. 약 10년간 스튜디오S 소속 PD로 일한 고인은 '소방서 옆 경찰서' 드라마 촬영 20여일 만에 "모든 게 버겁다"란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이후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공동조사위가 열리며 촬영이 중단됐던 '소방서 옆 경찰서'는 5월이 돼서야 촬영을 재개했다. 그리고 첫 방송을 4일 앞둔 지난 8일 고인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공동조사위는 조사 결과 평소 업무에 대한 애정과 책임이 컸던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고 명확히 하며 매년 1월 30일을 조합원 안전의 날로 제정하고 고인의 동료들이 현장에서 고충이나 어려움을 이유로 좌절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조 차원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거에 노력할 것이라고 고개 숙였다.그러면서 '소방서 옆 경찰서' 첫 회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 메시지가 게시되며 최종회 마지막 장면에는 고인의 사진과 추모의 뜻이 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조선구마사' 포스터.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소방서 옆 경찰서'의 메가폰을 잡은 인물은 신경수 PD로, 지난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방송 2회 만에 방송이 중단된 '조선구마사'를 연출했던 인물이다. 당시 신 PD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역사 속 인물들의 실명을 쓰면서 인물의 스토리 구성이나 표현에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 책임감을 느끼고 깊이 반성한다"며 "드라마의 내용과 관련한 모든 결정과 선택의 책임은 연출인 제게 있다"고 사과한 바 있다.'소방서 옆 경찰서'는 범인 잡는 '경찰'과 화재 잡는 '소방'의 '공동 대응' 현장일지로, 최초대응자들의 팀플레이를 그리는 작품. 김래원, 손호준, 공승연이 주연을 맡았고, 11월 12일 처음 방송되는 시즌 1에 이어 2023년 하반기 시즌 2까지 편성을 확정했다. 방송 전부터 시즌제로 촬영된 만큼 SBS에서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들은 작품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벌집막내아들' /사진제공=SLL∙래몽래인∙재벌집막내아들문화산업전문회사여기에 '소방서 옆 경찰서'가 맞붙어야 할 경쟁작은 '재벌집 막내아들'. 이 작품은 JTBC에서 금토일 주 3회 드라마라는 파격 편성을 내세울 만큼 강력한 기대작으로 밀고 있다. 무엇보다 흥행메이커 송중기 주연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의 기대 역시 높은 상황. '재벌집 막내아들' 보다 한 회차 먼저 시작하는 '소방서 옆 경찰서'가 논란을 딛고 기선제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송중기의 등장이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된다.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천원짜리 변호사' 이청아 떠올린 남궁민, 권혁범에 복수 포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08/0003101938?sid=106

/사진=SBS 방송화면'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이 복수를 포기했다.5일 방송된 SBS '천원짜리 변호사'에는 복수를 포기하는 남궁민의 모습이 그려졌다.천지훈(남궁민)은 옛 연인 이주영(이청아)를 살해한 차민철(권혁범)을 파티장에서 발견하고 그를 쫓아갔다. 칼을 들고 차민철을 쫓아갔던 천지훈은 과거 이주영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결국 칼을 버렸다.백마리(김지은)은 천지훈에게 자신이 알게된 살인범의 정체에 대해 밝혔다. 이후 천지훈은 연회장에 나타난 최기석 회장(주석태)의 목소리를 듣고 김윤석(남명렬)이 사망했을 때 전화를 받았던 인물이 그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천지훈은 그와의 식사 자리를 1억 원에 낙찰했다.이후 천지훈은 차민철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차민철은 천지훈을 칼로 위협했고 이윽고 두 사람 사이의 육탄전이 벌어졌다. 차민철을 제압한 천지훈은 "너도 그 고통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라며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이주영을 떠올린 천지훈은 차민철을 살리고 자리를 떠났다.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소방서 옆 경찰서’ 김래원, 남궁민 다음으로 찾아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4/0000847522?sid=106

SBS ‘소방서 옆 강찰서’ 제공‘소방서 옆 경철서’ 김래원이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을 대신해서 안방극장을 찾아온다.SBS 새 금토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극본 민지은, 연출 신경수, 제작 메가 몬스터)는 ‘천원짜리 변호사’의 후속 작품으로 오는 12일 첫 방송된다.‘소방서 옆 경찰서’는 범인 잡는 ‘경찰’과 화재 잡는 ‘소방’의 ‘공동대응’ 현장일지를 담은 드라마다. 타인을 위해 심장이 뛰는 사람들의 가슴 뜨거운 팀플레이, 사선을 넘나드는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찰’과 ‘소방’의 이야기다.게다가 ‘소방서 옆 경찰서’는 ‘검법남녀’로 쫄깃한 수사극의 묘미를 제대로 보여 준 민지은 작가의 새로운 공조 이야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명실공히 연기파 명품배우 김래원의 다채로운 열연과 서현철-강기둥-지우 등 개성파 배우들의 활약이 예고돼 ‘믿고 보는 연기 맛집’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무엇보다 김래원의 ‘ 검거 일타강사 ’ 변신 장면은 김래원의 살아 숨 쉬는 고밀도 표정 연기와 서현철-강기둥-지우의 생생한 리액션이 더해져 몰입감을 높였다. 촬영 전 대사를 맞춰보며 함께 톤을 잡았던 배우들은 리허설 중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촬영이 시작되자 장면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네 사람은 호쾌한 웃음으로 손뼉을 치며 환상의 ‘경찰서 케미’를 일으켰다 .제작진은 “극 중 ‘태원경찰서 식구들’로 등장하는 김래원, 서현철, 강기둥, 지우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부터 깨알 웃음, 훈훈함까지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며 극의 풍성함을 이끌 예정이다”라는 말과 더불어 “김래원이 분한 진호개(김래원)로 인해 다양한 사건, 사고가 휘몰아칠 ‘소방서 옆 경찰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SBS 새 금토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는 오는 12일(토) 첫 방송 된다.김하영 온라인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남궁민♥' 진아름, 풀만 가득한 점심 식단 공개…먹어도 배고프겠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2/0000579444?sid=106

[텐아시아=차혜영 기자]   
(사진=진아름 SNS)모델 진아름이 점심 식단을 공개했다.진아름은 8일 "LUNCH"라는 글과 음식 사진을 게재했다.사진 속에는 진아름이 점심으로 먹은 식단의 모습이 담겼다. 계란 스크램블, 파프리카, 키위, 견과류를 곁들인 샐러 드 등 먹어도 배고플 것 같은 식단이 놀라움을 유발한다.모델답게 마른 몸매를 유지하는 진아름의 노력이 돋보이는 식단이 눈길을 사로잡는다.한편 진아름은 배우 남궁민과 지난 10월 7일 결혼식을 올렸다.차혜영 텐아시아 기자 kay33@tenasia.co.kr

장르 변주 앞둔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복수 성공할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20076?sid=106

'천원짜리 변호사'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가 클라이맥스를 앞두고 또 한번의 장르 변주를 꾀해 흥미를 높이고 있다.현재 방영 중인 SBS 금토극 '천원짜리 변호사'는 수임료는 단돈 천원 실력은 단연 최고,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이 빽 없는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통쾌한 변호 활극이다. 전 채널 통합, 한주간 방영된 미니시리즈 중 1위에 수성했다. 지난 10회 방송에는 남궁민(천지훈)이 옛 연인 이청아(이주영)를 살해한 권혁범(차민철)의 정체를 밝혀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 김지은(백마리)의 인자한 할아버지이자 법조계 거목인 이덕화(백현무)가 권혁범과 은밀히 대화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며 이덕화가 권혁범의 범행에 연루되어 있는 흑막인지 궁금증을 자극했다. 이와 함께 '천원짜리 변호사'는 남궁민과 빌런들의 엔드게임을 앞두고 복수 스릴러의 매력을 더해졌다. 방영 초반 괴짜 변호사 남궁민의 코믹 법조 히어로물로 유쾌하게 포문을 연 '천원짜리 변호사'는 종영까지 단 2회를 남겨둔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적 변주를 꾀하며 변화무쌍한 재미를 선사해왔다. 특히 유명 화가 일가를 둘러싼 미스터리 살인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4화에서는 마치 추리 만화를 보는듯 독특한 무드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고, 남궁민의 기구한 과거사를 풀어낸 7-8화에서는 정치 느와르가 가미된 최루성 멜로까지 영역을 확장시킨 바 있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이처럼 다양한 장르를 하나의 드라마에 담아내면서도 높은 밀도를 자랑하며 '종합 장르 맛집'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장르의 변주가 주인공 남궁민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와 궤를 같이하며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유발했기 때문. 다가오는 방송에는 액션 장르의 재미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0화 말미에서 VIP 파티장 한 켠에서 권혁범을 찾아낸 남궁민이 주체할 수 없는 복수심에 휩싸여 행사장에 비치된 칼을 들고 다가가는 모습이 그려지는가 하면, 11화 예고 영상에서 남궁민과 권혁범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진 것. 짧은 예고 영상이었지만 천지훈 역 남궁민의 액션과 농도 짙은 감정 연기가 긴장감을 폭발시켰다. 예측할 수 없는 장르적 변주로 시청자들을 쥐락펴락해온 '천원짜리 변호사'가 어떤 엔딩을 선보일지 주목된다. 5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진아름, ♥남궁민과 결혼 후 달라진 분위기…'물오른' 본업 컴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6/0003936409?sid=106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남궁민의 아내 모델 진아름이 결혼 후 근황을 전했다.진아름은 환한 미소를 지은 채로 카메라 앞에 섰다. 우아한 겨울룩으로 변신한 진아름은 한층 더 편안한 미소가 돋보인다.특히 빛나는 피부와 시원스런 이목구비는 결혼 후 더 물오른 미모를 자랑한다.한편 진아름은 지난달 배우 남궁민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남궁민♥' 진아름, 결혼 후 미모 활짝 폈네 "겨울이 코앞"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1/0001521826?sid=106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남궁민의 아내이자 모델 진아름이 물오른 미모를 자랑했다.7일 진아름은 "winter is just around the corner"(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사진 속 진아름은 레드 컬러의 의상과 화려한 주얼리, 모자를 장착하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가고 있다.누리꾼들은 "너무 예뻐요", "멋지시네요", "아름다워요" 등이라며 호응하는 댓글을 올렸다.진아름은 2008년 모델로 데뷔했다. 지난 7일 11살 연상의 배우 남궁민과 7년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진아름은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숙되고 예쁘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인사를 전한 바 있다.사진= 진아름

[초점]빛바랜 남궁민…'천원짜리 변호사' 반쪽흥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18964?sid=106

기사내용 요약제2 우영우 신드롬 기대…조기종방 실망뒤죽박죽 편성에 시청률 15% 찍은뒤 주춤남궁민 전작 '검은태양'과 비슷한 전철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남궁민 활약에도 불구하고 SBS TV 금토극 '천원짜리 변호사'는 빛이 바랬다. 올해 박은빈 주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 후 법정물이 우후죽순 쏟아졌지만, 천원짜리 변호사만 주목 받았다. 수임료는 단돈 1000원, 실력은 최고인 변호사 '천지훈'(남궁민) 설정 자체만으로도 시청자 호기심을 끌기 충분했다. 시청률 10%를 넘으며 인기몰이 했지만, 총 12부작으로 조기 종방해 반쪽짜리 흥행에 그쳤다.이 드라마는 1회 시청률 8.1%(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시작, 3회(12.9%)만에 10%를 돌파했다. 8회 최고 시청률인 15%를 찍었고, 9회부터 제 2막을 예고했다. 갑자기 지난달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9회를 결방하고, 1~8회 하이라이트를 모은 스페셜 편을 내보냈다. 애초 16부작 종방이 예상됐으나, "14부작에서 12부작으로 확정했다. 속도감있고 완성도 높은 전개를 위함"라고 알렸다. 11일 종방을 앞두고 지난달 21·28일, 이달 4일 총 세 번이나 결방해 실망감을 줬다. 3주간 매주 한 회만 방송해 마무리, 금토드라인 점이 무색해졌다.남궁민은 '스토브리그'(2019~2020) 이후 2년 여만의 SBS 복귀다. '김과장'(2017)을 비롯해 '닥터 프리즈너'(2019) '검은태양'(2021) 등이 잇따라 흥행해 천원짜리 변호사에도 기대가 쏠렸다. 이 드라마는 친남매인 최수진·최창환 작가가 2015년 SBS 극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다. 2016년 박신양 주연 KBS 2TV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후 '피고인'(2017) '흉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2018)을 먼저 선보였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공모전 당선 후 7년 여 만에 빛을 보게 된 셈이다.남궁민은 괴짜 변호사 캐릭터를 현실감있게 표현해 공감을 샀다. 체크무늬 정장과 파마머리, 선글라스 등 직접 아이디어 낼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몸무게를 감량하고 난생 처음 과한 파마도 하고, 평소 입지도 못할 옷을 많이 시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얼핏 보면 만화적이고 비현실적인 캐릭터지만, 힘없는 자들을 변호하며 따뜻한 매력을 녹였고 영웅적인 면모도 드러냈다. '백마리' 역의 김지은과는 닥터 프리즈너와 검은태양에 이어 세 번째 호흡을 맞춰 시너지 효과를 냈다. 비슷한 시기 방송한 KBS 2TV '법대로 사랑하라'와 JTBC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디즈니플러스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등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성과다.하지만 이 드라마도 중·후반부로 갈수록 간접광고(PPL) 등으로 얼룩졌다. 커피를 비롯해 찜닭 프랜차이즈, 건강기능식품, 양대창 브랜드 등 광고가 줄이어 몰입도를 방해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가 아니라 광고'라며 '너무 노골적'이라고 반감을 드러냈다. 더욱이 시청자를 배려하지 않은 축소 편성에 항의가 쏟아졌다. 시청자게시판에는 '시청률 높은데 이유없이 연속 결방하는 이유가 뭐냐'며 황당해하는 반응이 많다. 이와 함께 시즌2를 바라는 글도 적지 않다. 결국 뒤죽박죽 편성 탓에 이야기 긴장감은 떨어졌고, 8회 이후 9회 14.6%, 10회 13.7% 시청률 하락이 이를 방증했다.방송 관계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 극본이 늦게 나오거나, 컴퓨터그래픽(CG) 등 후반 작업이 원활하지 않으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휴방하곤 했다. tvN 드라마 '환혼'(2022) '빈센조'(2021) 등이 그랬다. 그러나 방송사가 손해를 감수하며 회차까지 줄이는 일은 흔치 않다. 한 관계자는 "프라임 시간대 한 회만 결방해도 광고비 수억 원을 손해 보는데, 인기작을 조기 종방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수청 요청이 많아 극본이 늦게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12부작으로 줄인 뒤에도 극본이 늦게 나와 촬영이 빠듯했다"고 귀띔했다. 남궁민 전작인 검은태양도 초반 속도감있는 전개로 호평 받았지만 후반부 기대에 못 미치고 종방했는데, 천원짜리 변호사는 더욱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이렇게 다정했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4/0000847239?sid=106

SBS 금토극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이 다정하게 변신했다.SBS 측은 5일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김지은의 촬영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천원짜리 변호사’는 수임료는 단돈 천원 실력은 단연 최고,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남궁민)이 빽 없는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통쾌한 변호 활극으로 전 채널 통합, 한주간 방영된 미니시리즈 1위를 수성하며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천원짜리 변호사’ 10화에서는 천지훈과 백마리(김지은), 사무장(박진우)이 몽타주 한 장을 가지고 천지훈의 옛 연인 이주영(이청아)을 살해한 범인 차민철(권혁범)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극 말미에 JQ그룹 VIP 파티장에서 차민철을 발견한 천지훈이 주체할 수 없는 복수심에 휩싸여 칼을 들고 그에게 다가는 모습이 담겨, 천지훈의 복수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기대감을 자극했다.이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에는 천지훈의 이상행동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평소 골 때리는 행동과 언변으로 부사수 백마리를 분노케 했던 괴짜 천지훈은 온데 간데없이, 한없이 다정한 모습이 담겨있다. 무엇보다 천지훈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멋쟁이 선글라스를 벗어서 백마리에게 직접 씌워준 뒤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있는데, 백마리를 향한 손길과 눈빛이 의아할 정도로 따뜻하다.한편 백마리는 낯선 천지훈의 모습에 어리둥절한 얼굴이다. 사수의 다정한 모습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백마리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그도 잠시 백마리는 천지훈의 선글라스가 마음에 쏙 들었는지 밝은 표정으로 사무장 앞에서 이리 저리 폼을 재보고 있는데, 마치 ‘리틀 천변’같아 보는 이의 미소를 자아낸다.과연 부사수 백마리를 골탕 먹이는 일이 삶의 낙 중 하나였던 괴짜 천지훈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인지는, 이날 오후 10시에 확인할 수 있다.이다원 기자 edaone@kyunghyang.com

'천변' 남궁민, 액션X웃음X울림 '연기맛집'..최종회 어떤 엔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0897487?sid=106

[스포츠서울 | 조현정기자] ‘천원짜리 변호사’의 배우 남궁민이 액션부터 웃음, 울림있는 연기까지 오가는 팔색조 같은 연기력으로 안방극장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남궁민은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최수진, 최창환 극본· 김재현 연출)에서 수임료가 단 돈 천원인 천지훈 변호사로 맹활약하며 ‘믿고 보는 배우’라는 이름값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5일 방송한 11화에서 천지훈이 이주영(이청아 분)을 죽인 진범을 뒤쫓아 직접 대면하는 장면이 펼쳐져 긴장감을 한껏 끌어 올렸다. 핏빛 복수를 결심했지만 이주영이 원했던 자신의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낀 지훈은 돌연 자취를 감췄고 1년 뒤 영락없는 모습으로 복귀해 새로운 활약을 암시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천지훈은 잠입 끝에 차민철(권혁범 분)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가 결국 서로 마주하게 돼 맹렬한 결투를 벌였다. 남궁민은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고 위협하며 순식간에 액션 스릴러로 장르를 전환해 천지훈 캐릭터에 입체감을 더하면서도 화려한 액션과 숨막히는 대치로 극의 긴장도를 끌어올렸다. 또한 엉뚱한 매력으로 웃음을 안기며 극을 풍성하게 했다. 홀연히 사라졌던 천지훈이 어느 시골마을에서 변호 상담을 했고 마을 사람들이 천지훈의 정체를 의심하자 귀엽게 발끈해 웃음을 안겼다. 종이접기를 하고 마이크 들고 쇼를 펼치는 만화 같은 상황에서 남궁민의 매끄러운 연기력이 더욱 빛났다.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천지훈은 떠난 이유에 대해 ‘복수심이 아닌 나만의 답과 의미를 찾고 싶었다’, ‘천원짜리 변호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답하며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남궁민은 인물의 진심이 느껴지는 깊이있는 호연으로 시청자들을 극에 몰입하게 했고 천백사의 재결합이 그려지며 극을 훈훈하게 했다. 액션부터 울림까지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연기 내공을 발휘해 명연기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남궁민이 다음주 마지막회를 앞둔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어떤 엔딩을 장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남궁민이 열연 중인 ‘천원짜리 변호사’는 다음주 금요일 밤 10시 최종회가 방송된다.hjcho@sportsseoul.com사진| SBS 천원짜리 변호사’ 방송 화면

‘남궁민♥’ 진아름, C사 예물백 들고 신난 새댁‥더 예뻐졌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9/0000650401?sid=106

[뉴스엔 이해정 기자] 모델 겸 배우 진아름이 결혼 후 밝은 근황을 전했다. 진아름은 11월 7일 개인 SNS에 "겨울이 코앞이야"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진아름은 빨간색 벨벳 원피스에 베레모를 쓰고 외투를 살짝 벗어 멋스러운 느낌을 냈다. 거리를 걸으면서 뒤를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포즈가 세련된 아름다움을 풍긴다. 특히 오른쪽 팔에 걸린 C사 체인백은 모든 여성들의 워너비 예물백이라고도 불리는 제품으로 눈길을 끈다. 한편 진아름은 지난 7일 배우 남궁민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사회는 남궁민과 절친한 배우 정문성이 맡았고, 축가는 동방신기가 맡았다.영화 '라이트 마이 파이'에서 감독과 배우로 인연을 맺은 남궁민과 진아름은 11살 차를 극복하고 2016년부터 공개 열애해왔다.현재 남궁민은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 출연 중이다. (사진=진아름 인스타그램)

남궁민, 이마 핏줄 세우며 울었는데..'천변' 반토막 토요 드라마 조롱(종합)[Oh!쎈 초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09/0004735202?sid=106

[OSEN=박소영 기자] SBS 금토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를 향한 시청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새 토요 드라마로 반토막 난 편성 전개 때문이다. 지난 9월 23일 금토 드라마로 시작한 ‘천원짜리 변호사’는 지난달 21일부터 토요 드라마로 매주 1회만 전파를 타고 있다. 10월 14일 금요일 7회가, 10월 15일 토요일 8회가 방송된 후 갑자기 3주째 주 1회만 안방을 찾고 있다.지난달 21일 1~8회 내용을 간추린 ‘천원짜리 변호사-인터미션’을 대체 편성한 뒤부터다. 하루 뒤인 10월 21일 금요일엔 2022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중계 방송 탓에 결방됐다. 그런데 10월 28일 금요일, 11월 4일 금요일에도 ‘천원짜리 변호사’를 본방 사수 할 순 없었다.‘천원짜리 변호사’는 ‘대상 배우’ 남궁민이 ‘스토브리그’ 이후 SBS로 돌아와 다시 한번 대상 트로피를 노리고 있는 작품이다. 여기에 김지은(백마리 역)과 박진우(사무장 역)의 찰떡 케미까지 더해져 “역시”라는 찬사에 힘을 싣고 있다.시청률 성적표 역시 훌륭하다. 1회 시청률 8.1%(이하 닐슨코리아 기준)로 시작한 ‘천원짜리 변호사’는 방송 5회 만에 14.9%를 기록했고, 지난달 15일 방송된 8회는 15%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9회는 하루 결방 했음에도 14.6%를 기록했다.   
그러나 잦은 공백 때문일까. ‘천원짜리 변호사’는 9회부터 어쩐지 시청률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양새다. 10회는 13.7%, 11회는 13.6%를 나타냈기 때문. 8회 15.0%를 찍은 후 탄력 받아야 할 시청률이 잦은 결방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시청률 20%대 벽도 넘길 수 있을 거란 평가를 받았던 초반 기세와 달리 잦은 결방과 12회 축소 편성이 결정타가 됐다. 이런 탓에 ‘용두사미(처음은 좋지만 끝니 좋지 않음을 이르는 말)’라는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금토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시청자들을 브라운관 앞으로 끌어당기기 충분했지만 토요 드라마가 된 ‘천원짜리 변호사’는 그렇지 못하다. 어느새 종영까지 단 1회만 남긴 이 작품이 과연 박수 받으며 안방을 떠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다행히 ‘천원짜리 변호사’ 마지막 회는 11월 11일 금요일 그대로 전파를 탈 예정이다./comet568@osen.co.kr[사진]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참사 애도…"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08610?sid=10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배우 남궁민이 5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6회 백상예술대상(2020)' 레드카펫 포토월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백상예술대상 사무국 제공) 2020.06.05.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장인영 인턴 기자 =   
[서울=뉴시스] 남궁민 인스타그램 캡처. 2022.10.31. (사진=인스타그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배우 남궁민이 이태원 참사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남궁민은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prayforitaewon' 해시태그와 함께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태원, 깊은 애도의 뜻을 보냅니다'라고 적힌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남궁민은 이태원 압사 참사로 세상을 떠난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 배우 이지한과 같은 소속사인 935엔터테인먼트에 있다.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에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남궁민과 찰떡' 김지은, 무지갯빛 대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09/0004734108?sid=106

[OSEN=최나영 기자] 배우 김지은이 ‘천원짜리 변호사’를 통해 무지개 빛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인기리에 방송 중인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연출 김재현, 신중훈/ 극본 최수진, 최창환) 에서 천지훈(남궁민) 변호사의 시보 백마리 역을 맡은 김지은의 열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먼저 베일 듯한 칼 단발에 슈트 핏, 뾰족한 하이힐까지. 김지은은 극중 화려한 스펙의 찬란한 미래가 기대 되는 ‘백마리’ 그 자체로 캐릭터와 완벽한 싱크로율을 뽐내며 완벽한 이미지 변신을 꾀한 것은 물론 탄탄한 딕션과 풍요로운 표정연기로 캐릭터의 당당한 매력을 배로 이끌었다.또한 천지훈과 티키타카 케미, 사무장(박진우)과 환상의 찰떡 케미를 뽐내기도 하며, 몸을 사리지 않는 코믹 연기까지 펼치며 매회 극의 흥미와 재미를 수직 상승 시켰다. 특히 눈길을 끈 건, 김지은의 걸 크러쉬. 지지 않는 카리스마로 화끈한 활약상을 남기며 사이다를 선사했다.이렇듯 김지은은 ‘천원짜리 변호사’를 통해 특유의 사랑스러움을 폭발 시키며 장르 불문, 캐릭터 불문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이다. 특히 남궁민과는 '미녀 공심이', '닥터 프리즈너', '검은태양'에 이은 남궁민과의 네 번째 만남으로 찰떡 호흡을 보여주고 있어 남다르다.이처럼 '천원짜리 변호사'를 통해 주연 배우로서 제대로 진가를 발휘한 김지은은 일찍이 차기작을 확정지으며 대세 행보에 힘을 실었다.그는 새 드라마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의 주인공으로 발탁, '어게인 마이 라이프' 한철수 PD와 재회한다.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는 시골 마초 오형사의 미스터리 추적극으로, 앞서 나인우가 출연 소식을 전했던 바 있다. '검은태양'부터 '어게인 마이 라이프', '천원짜리 변호사'까지 굵직한 작품에서 뼈대굵은 배우들과 함께하며 주연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진 김지은이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한편, ‘천원짜리 변호사’는 수임료는 단돈 천원 실력은 단연 최고, ‘갓 성비 변호사’ 천지훈이 빽 없는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통쾌한 변호 활극. 오늘(5일) 11회가 방송된다./nyc@osen.co.kr[사진] 천원짜리 변호사’ 화면 캡쳐

[TEN피플] 남궁민, 막무가내 결방에 '하락세'…1회 남았는데 "시청자 우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2/0000578957?sid=106

[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 사진제공=SBS배우 남궁민이 이유 없는 결방에 발목이 잡혔다.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의 시청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 드라마를 이끌고가는 남궁민의 열연이 안쓰러운 이유다.지난 5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11회에서는 천지훈(남궁민 분)이 옛 연인 이주영(이청아 분)의 목숨을 앗아간 차민철(권혁범 분)을 살해할 뻔한 이후의 모습이 그려졌다. 천지훈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려 1년의 은둔생활을 거치고 한층 단단해진 모습으로 백마리(김지은 분), 사무장(박진우 분)의 곁에 돌아왔다.남궁민은 SBS 연기대상을 받은 뒤 2년 만에 SBS에서 주연을 맡아 재치 넘치는 연기를 선보여왔다. 코믹과 진지를 오가는 남궁민 특유의 맛깔스러운 연기는 시청자들을 단숨에 몰입시켰다. 지난 9월 23일 첫 방송 시청률 8.1%로 시작해 3회 만에 10%대를 넘기면서 또 한 번 남궁민 주연의 흥행 드라마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화제성과 작품성을 갖추며 호평 받았던 '천원짜리 변호사'는 당초 14부작과 달리 12부작으로 종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빠른 전개를 위해서였다고 해명을 내놨다.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스틸컷. / 사진제공=SBS게다가 2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9회부터는 '주 2회 편성 드라마'가 '주 1회 편성 드라마'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9회는 본래 방송 예정일인 10월 21일이 아닌 22일에 방송했고, 21일에는 1~8회 하이라이트 모임인 '천원짜리 변호사-인터미션'이 편성됐다. 그 다음주도 결방도 계속됐다. 10월 28일에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중계로 결방했고, 10월 29일에 10회가 방영됐다. 11월 4일에는 SBS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인 '2022 D포럼' 중계 때문에 또 다시 결방이 예고됐다. 그러나 이 중계가 취소됐는데도 '천원짜리 변호사'가 아닌 그 다음 타임의 '지선씨네마인드'가 평소보다 앞당겨 방영됐다.이에 더해 '천원짜리 변호사'는 과도하고 노골적인 PPL로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높은 시청률에 PPL로 광고비라도 더 챙기겠다는 수작이냐, 촬영분이 없어서 PPL로 시간을 때우려는 속셈이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시청자 게시판에도 “갑자기 중반부터 이상한 PPL에 쓸 데 없는 내용들로 시간 때우다가 조기 종영? 시청자 우롱하냐", “왜 결방이냐", “급발진한 스토리, 과도한 PPL, 연이은 결방, 축소 방송, 방송국의 횡포", “남궁민 연기가 아깝다" 등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진=SBS '천원짜리 변호사' 방송 캡처8회 15.0%까지 올랐던 시청률은 9회 14.6%, 10회 13.7%, 11회 13.6%까지 조금씩 하락했다. 다행스러운 건 11회의 시청률 13.6%, 순간 최고 18.4%의 기록이 전채널 통합, 한주간 방영된 미니시리즈 중 1위라는 것. 악조건 속에 남궁민이 초반, 드라마 팬층을 단단히 만들어둔 덕이다.연이은 결방 사태에 진작 종영했어야 할 '천원짜리 변호사'는 아직도 1회분이 남았다. 이번에도 제작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결방을 공지한다면 종영일이 또 미뤄질지도 모를 일. 시청자들은 현재 종영 예정일인 11월 11일에라도 남궁민의 열연을 감상하며 깔끔하게 시청을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다.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천원짜리 변호사’ 스튜디오S와 작가 불화가 사태 키웠다[TV와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9/0000651043?sid=106

[뉴스엔 김범석 전문기자] SBS 금토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극본 최수진, 최창환/연출 김재현, 신중훈)의 이해하기 어려운 잦은 결방과 조기 종영은 제작사 스튜디오S와 작가의 불화가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1일 최종회를 남겨둔 ‘천변’은 흥미롭고 통쾌한 스토리에 힘입어 8회 최고 시청률(15%)을 기록하며 ‘믿고 보는 남궁민’이라는 찬사까지 나왔다. 전작 ‘오늘의 웹툰’이 1.6%로 저조하게 끝난 시간대를 ‘천변’이 다시 살린 것이다.하지만 정작 내부에선 판이 깨질까 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는 증언이 속속 나왔다. 익명을 원한 ‘천변’의 한 관계자는 11월 9일 “SBS에서 분사한 제작사 스튜디오S가 작품보다 회사 실적과 효율을 중시하면서 벌어진 갈등과 균열이 결국 이런 사달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어느 드라마나 작가, 연출, 배우, 제작사 간의 미묘한 입장 차와 갈등이 있게 마련”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모두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취지라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튜디오S가 현명하게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역지사지하지 못한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꼬집었다.SBS 직원이었던 드라마 PD들이 나와 만든 외주제작사 스튜디오S가 ‘천변을 다소 험악하게 핸들링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체로 반응이 엇갈렸다. 남궁민이라는 믿보배 캐스팅에 성공했고, 시청률도 기대를 웃돌며 초반 분위기는 무척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5~6회 대본부터 스튜디오S와 작가의 갈등이 불거졌고 불필요한 신경전이 오갔다는 전언이다. 지각 대본과 수정 요청, 촬영 딜레이가 나온 배경이다.과도한 PPL도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였다. 꼬박꼬박 월급 받던 PD가 아닌 살아남아야 하는 신생 제작사 간부들이 된 만큼 무리한 PPL을 ‘천변’에 배치하며 작가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목소리다. 한 PPL 관계자는 “천변은 대놓고 광고를 하는 것 같은 노골적인 PPL이 극 초반부터 여럿 등장해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천변’에는 커피 믹스와 찜닭, 양대창, 건강 기능식품 등 다양한 PPL이 줄기차게 등장했는데 남궁민이 사무장이 타준 커피를 마신 뒤 ‘카페를 만드셨습니다’라고 극찬하거나 야식을 보곤 ‘제가 찜닭은 싫어하지만, 스파게티와 먹으니 맛있네요’ 같은 대사를 하는 장면이 여럿 전파를 탔다. 보통 조연 배우가 두루뭉술하게 제품을 언급하는데 비해 주연이 직접 PPL에 나선 것이라 이례적이었다.그렇다고 PPL을 제작사 과실로 볼 순 없다. 방송사가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 탓에 턱없이 모자라는 제작비를 마련하려면 협찬과 PPL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작비 전액을 쏴주고 대본, 편집에 관여하지 않는 넷플릭스로 가는 대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다.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한 잡음도 나온다. ‘천변’은 웨이브와 디즈니 플러스에 방영권을 판매했는데 특히 디즈니 플러스 덕에 대만 1위, 싱가포르 2위 등 론칭된 6개국에서 모두 상위권을 기록했다. 하지만 스튜디오S가 계약 과정에서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의 합작인 토종 OTT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일부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수임료는 단돈 천 원, 실력은 최고인 천지훈 변호사의 유쾌, 통쾌한 복수극 ‘천변’은 2회가 줄어든 12회로 조기 종영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SBS는 “속도감 있고 완성도 높은 전개를 위해서”라고 답했지만 어쩐지 궁색하게 들린다. ‘천변’은 지난달과 이달 잇따라 세 차례나 결방해 3주간 주 1회만 방송되며 시청자 불만을 자초했다.(사진=SBS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권혁범 미행→이덕화에 의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2/0003597406?sid=106

[헤럴드POP=전하나 기자]   
SBS '천원짜리 변호사' 방송캡쳐남궁민이 권혁범을 미행하다 이덕화와 그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다.5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서는 천지훈(남궁민 분)이 진범 차민철(권혁범 분)의 뒤를 쫓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이날 천지훈이 진범 차민철과 인사를 나누는 백현무(이덕화 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이어 차민철을 쫓은 천지훈은 자신의 뒤에서 나타난 사무장(박진우 분)에 깜짝 놀랐다. 천지훈은 "방안에 들어갔는데 가드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잡아올게"라고 말했고, 사무장은 "나한테 맡겨"라며 직원으로 완벽하게 위장해 방에 무사히 들어갔다.사무장을 통해 방안의 상황을 지켜보던 천지훈은 "경매 아니다 뇌물이다. 자금 세탁을 위한 뇌물"라고 설명했다.

남궁민 '천원짜리 변호사', 오늘(4일) 또 결방... 이쯤 되면 주 1회 드라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09539?sid=106

'천원짜리 변호사'가 오늘(4일) 결방한다.SBS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종영을 단 2회 앞두고 이날 방송을 쉬어간다. 대신 내일(5일) 오후 10시에 11회로 찾아온다.결방 이유는 당초 SBS의 사회공헌 지식나눔 프로젝트인 '2022 D포럼' 중계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중계가 취소됐는데도 드라마 대신 '지선씨네마인드'가 방영된다.앞서 '천원짜리 변호사'는 화제성과 작품성 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14부작에서 12부작으로 조기 종영을 확정했다. 제작진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중계를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그간 잦은 결방과 하이라이트 장면만 모아서 볼 수 있는 '천원짜리 변호사-인터미션' 등을 대체 편성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쯤되면 주 1회 편성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천원짜리 변호사'는 지난 9월23일 첫 방송 시청률 8.1%로 시작해 단 3회 만에 10%를 넘어섰다. 지난 달 29일 10회는 13.7%로 두 자리를 이어왔다.특히 SBS 연기대상을 받은 배우 남궁민 씨가 2년 만에 복귀한 SBS 금토드라마로 더욱 화제가 됐다. 김지은, 최대훈, 박진우 씨 등 배우들의 구멍 없는 열연으로 완벽 팀플레이를 펼쳐왔다.극중 주인공 천지훈(남궁민 분)은 수임료 단돈 1000원을 받으며 실력은 최고인 '갓성비 변호사'를 표방한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으면서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줬다. 또 최근 쏟아지는 법정물 속 유쾌함은 물론 감동까지 선사하며 드라마 인기를 입증해왔기에 시청자들의 아쉬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사진=SBS]\*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원짜리 변호사’ 남궁민, 폭주 엔딩…최고 17.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37712?sid=106

사진 ㅣSBS 남궁민이 이청아를 살해한 진범 권혁범을 찾아냈다. 복수심에 이성을 잃은 남궁민의 모습이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29일(토)에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극본 최수진, 최창환/연출 김재현, 신중훈/제작 스튜디오S) 10회에서는 천지훈(남궁민 분), 백마리(김지은 분), 사무장(박진우 분)이 천지훈의 옛 연인 이주영(이청아 분)을 살해한 진범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했다.이날 ‘천원짜리 변호사’는 수도권 평균 14.1%, 전국 평균 13.7%, 순간 최고 17.8%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 채널 통합, 한주간 방영된 미니시리즈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049 시청률은 5.9%로 이는 한주간 방영된 전체 프로그램 중 1위의 기록이다. (닐슨 코리아 기준)이날 천지훈은 의뢰인으로 찾아온 의문남(권혁범 분)이 이주영을 살해한 진범이라고 직감했다. 사실 천지훈은 진범이 언젠가 자신의 사무실에 반드시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사건현장 CCTV에 찍힌 진범의 인상착의와 자신이 기억하는 진범의 눈매를 토대로 그동안 만난 의뢰인들을 대조하며 홀로 수사를 해왔던 것. 또한 진범 대신 경찰에 자수를 하고 구속 수감 중인 조우석(전진오 분)에게도 지속적으로 찾아가 회유를 하고 있었다. 이에 조우석은 천지훈에게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고 고백, 진범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증언한 상황이었다.천지훈을 찾아온 의문남은 최근에도 한 남자를 살해하고 번개탄 자살로 꾸며낸 범죄 프로 차민철이었다. 그는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며 뒤처리를 해줄 변호사를 찾는다고 천지훈을 떠봤고, 천지훈은 적당히 맞춰주는 척을 하며 기 싸움을 벌여 긴장감을 높였다. 조우석이 진범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민철의 사진만 손에 넣으면 확인해볼 수 있는 상황. 천지훈은 자연스럽게 차민철의 신분증을 건네 받아 복사를 했지만, 차민철은 신분증에 미리 복사방지 필름을 붙여 뒀었고 자신의 흔적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홀연히 자리를 떴다. 이후 차민철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천지훈이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고해 긴장감을 높였다.이로써 천지훈은 차민철인 진범이라고 확신했다. 그가 건넨 전화번호도 주소도 모두 가짜였기 때문. 눈앞에서 진범을 놓친 천변은 괴로워했고, 그가 걱정스러웠던 백마리는 천지훈의 상처를 함께 짊어지기로 마음 먹었다. 백마리는 사무장에게도 천지훈의 사연을 알렸고, 천지훈은 “의뢰인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거 이번엔 천변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는 동료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을 열고 함께 차민철을 추적하기로 결정했다.세 사람은 본격적인 팀플레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져도 차민철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이때 뜻밖의 미술 전공자 백마리의 활약으로 몽타주를 손에 넣은 세 사람은 조우석을 찾아갔다. 그리고 몽타주를 통해 얼굴을 떠올린 조우석은 차민철이 도박장에 나타나 돈이 궁했던 자신에게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대리 자수를 시켰다고 증언했다.세 사람은 도박장을 찾아갔다. 이때 천지훈은 판돈 천원으로 센세이셔널한 승률을 달성하며 도박판을 휘어잡았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도박장 관리자를 만나기 위한 천변의 설계였다. 예상대로 천지훈 탓에 망할 위기에 놓인 관리자는 그를 따로 불러냈고, 천지훈은 차민철의 몽타주를 들이밀며 취조를 했지만 그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낙담도 잠시, 사건 관련자로 의외의 인물이 떠올랐다. 차민철과 조우석을 연결시켜준 인물이 다름아닌 천지훈이 ‘아는 건달’ 불곰(박재철 분)이었던 것. 불곰은 천지훈에게 차민철과 최근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려줬다. 그리고 차민철의 참석이 유력해 보이는 JQ그룹 VIP 파티 초대장을 건넸다.한편 서민혁(최대훈 분)과 나예진(공민정 분) 역시 차민철을 쫓고 있었다. 그가 번개탄 자살로 위장 시킨 살인사건에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 사실 차민철이 살해한 남성은 JQ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펀드사 대표 김성욱(강우제 분)였고 관련자들이 연달아 자살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민혁과 나예진의 수사 종결을 지시하는 상부의 압박에도 은밀히 수사를 해 나갔고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현장에 탐문을 나섰던 서민혁은 천연기념물보호종을 관리하기 위해 부착해 둔 카메라를 통해 수상한 남자를 찾아냈고 이를 기반으로 용의차량까지 추적하는데 성공, 차량 안에서 천지훈이 얻은 것과 같은 초대장을 손에 넣었다.이윽고 문제의 파티날이 다가왔다. 천지훈은 차민철 뒤에 흑막이 있을 것이며 그가 JQ그룹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추측에 도달했다. 한껏 차려 입고 파티에 잠입한 천지훈, 백마리, 사무장은 몽타주를 들고 뿔뿔이 흩어져 차민철을 찾았고, 같은 시각 서민혁과 나예진도 파티장에 도착해 차민철을 추적했다. 이때 차민철을 발견한 천지훈은 급하게 뒤를 쫓다가 차민철이 행사장 한 켠에서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한 뒤 충격에 빠졌다. 차민철이 만난 인물이 다름아닌 백현무(이덕화 분)였던 것. 혼란스러움도 잠시 천지훈은 다시금 차민철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복수심에 휩싸인 천지훈이 이성을 잃고 행사장 한 켠에 비치된 칼을 집어 들고 차민철에게 다가서는 모습으로 극이 종료돼 긴장감을 폭등시켰다. 과연 천지훈이 이주영을 살해한 진범을 향해 어떤 복수를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아가 법조계의 큰 어른이자 백마리의 인자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던 백현무가 위선의 탈을 쓴 ‘흑막’이었을지 궁금증이 수직 상승한다.

‘천원짜리 변호사’ 맛깔난다, 남궁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4/0000845908?sid=106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남궁민이 매회 안방에서 진수성찬을 선보이고 있다.29일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10회에서는 이주영(이청아 분)을 죽인 진범에 한걸음 가깝게 다가가는 이야기가 그려졌다. 진범을 목격한 지훈은 그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 범인이 자신을 직접 찾아오게 만들겠다던 지훈의 집념대로 두 사람이 마주하며 흥미진진한 극 전개를 예고했다.특히 사무장(박진우 분), 백마리(김지은 분)과 팀 플레이로 극을 한층 흥미롭게 이끌었다. 팀원들과 옹기종기 모여 몽타주를 작성, ‘천화백’ 급 그림 실력을 뽐내는 등 천지훈 다운 깨알 포인트로 코믹 모먼트를 더했고, 도박장과 파티장에서는 몰래 범인을 찾기 위해 기발한 기지를 발휘, 유쾌함으로 극을 채웠다.결국 극의 말미, 지훈은 파티장에서 진범을 찾아냈고 이어 백회장(이덕화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포착, 뜻밖의 반전을 잡아내며 다음 회차에 대한 궁금증을 상승시켰다.천지훈은 과거와 현재의 온도가 사뭇 다른 인물로 결말에 가까워질수록 지훈의 과거 사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자연스레 극의 흐름 또한 자칫 진중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남궁민은 이를 캐릭터의 무게 추를 조절, 극의 긴장감을 느슨해지지 않도록 끌어올렸고 시청자가 기대하고 바라는 ‘천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진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표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며 몰입을 배가시켰다.남궁민은 SBS 금토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수임료 단 돈 천원으로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 역을 맡아 화려하게 극을 채우고 있다.남궁민의 활약 속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위를 차지, 굳건한 흥행 가도를 질주하고 있는 ‘천원짜리 변호사’는 매주 금, 토요일 오후 10시 SBS에서 방송된다.안병길 기자 sasang@kyunghyang.com

남궁민, 3년연속 대상 분위기인데..'천원짜리' 3번 결방에도 용두용미될까 [Oh!쎈 초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09/0004734457?sid=106

SBS 제공[OSEN=장우영 기자] 금토드라마가 ‘토요드라마’가 되고 말았다. 2022년 하반기 최고 인기 드라마로 손 꼽히던 ‘천원짜리 변호사’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중계도 있지만 이유 모를 결방으로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SBS 금토드라마로 시작한 ‘천원짜리 변호사’(극본 최수진, 연출 김재현)가 2막에 접어들면서 ‘토요드라마’처럼 방송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1~8회 내용을 간추린 ‘천원짜리 변호사-인터 미션’을 대체 편성한 뒤부터다.‘천원짜리 변호사’ 9회는 토요일인 지난달 22일 방송됐고, 10회도 토요일인 지난달 29일에 방송됐다. 22일 금요일은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중계로 결방됐다. 명색이 ‘금토드라마’인데 2주 연속 토요드라마로 방송된 ‘천원짜리 변호사’는 지난 4일도 결방을 선택했고, 5일 오후 10시 11회를 방송한다. 그리고 오는 11일에는 ‘금요일’에 방송을 하며 막을 내리고자 한다.‘천원짜리 변호사’는 수임료는 단돈 천원 실력은 단연 최고,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남궁민)이 빽 없는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통쾌한 변호 활극을 그린 드라마다. 지난 9월 23일 첫 방송된 뒤 하반기 최고 인기 드라마로 불려도 손색 없는 인기를 달리고 있다.이유는 시청률로 증명된다. 시청률 8.1%로 시작한 ‘천원짜리 변호사’는 방송 5회 만에 14.9%를 기록했고, 지난 15일 방송된 8회에서 15%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9회는 하루 결방을 했음에도 14.6%를 기록했다.그러나 ‘천원짜리 변호사’가 토요드라마가 되면서 안타까운 하락세를 피할 수 없었다. 20%도 넘길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초반 기세와 달리 결방과 12회 축소가 결정타가 됐다. 일주일에 두 번 만날 수 있던 ‘천원짜리 변호사’가 한 번 밖에 만나지 못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흥미와 관심도가 떨어지게 됐고, 지난달 29일 방송된 10회는 전국 시준 시청률 13.7%에 그쳤다. 최고 시청률 15%(8회)에 비하면 1.3%p 하락한 수치다.천지훈과 백마리(김지은), 사무장(박진우)이 시원하고 통렬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이주영(이청아)을 살해하고 천지훈의 아버지 죽음에 원인을 규명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잦은 결방이 흐름을 끊었고, 게다가 12회 축소 편성으로 급히 마무리를 하려는 모양새가 아쉬움도 남긴다.‘스토브리그’, ‘검은태양’에 이어 3년 연속 연기 대상을 노리던 남궁민의 기세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남궁민은 ‘천원짜리 변호사’ 방송 전부터 시청률 20%가 목표라고 밝혀왔다. 그의 기대에 부응하듯 ‘천원짜리 변호사’는 승승장구 했지만, 12회 축소 편성과 잦은 결방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전 한풀 꺾였다.이제 남은 회차는 단 2회 뿐이다. 12회 축소 편성의 아쉬움을 털기 위해서는 좀 더 밀도 있는 스토리 라인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용두용미’가 될 수 있을까. 남은 2회차에 이목이 쏠린다. /elnino8919@osen.co.kr